

Sri Lanka +

April ௧

RaonAtti 3rd

글 순서

승찬 글

기연 글

금선 글

하현 글

랑카팀의 April

Seung chan

- + 랑카팀 여행기
- + 요리보고 조리보고

랑카팀여행기

여행기 중 인상깊은 내용을 옮깁니다. 커리식당, 스리랑카 술자리, 호수에서의 샤워...

나는 이곳 스리랑카에서 모든 것은 알아갈 수는 없지만 항상 즐기고 싶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다. 모라투와에만 있고, 코디네이터와 계속 움직이니 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다. 2박3일간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왔다. (캔디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시기리야 커리식당

허리를 펴기 힘든 화장실, 씬 없이 날아다니는 파리들...이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난 먹기 힘들었다. 지난 2개월 동안 맛 보지 못한 커리맛...

그래서 먹는 동안 팀원과 현지Y분들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내 입맛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현지 YMCA분들도...

시기리야 외딴 지역의 식당이라서 외국인이 흔치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음식이 우리 입맛에 어떨지 궁금하셔서 노심초사 우리 테이블 주변을 한참을 서성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음식은 이 식당에서 평소보다 더 신경써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맛있게 손으로 깔끔히 먹었다. 그리고는 747레스토랑은 특급커리임을 순간 인정해버렸다.

(747 : 우리가 매일 먹는 커리가게 이름)

스리랑카 술자리는 항상 배고프다

이 곳은 우리와 다르게 식전에 술을 마시고 난 뒤 밥을 먹는다. 그래서 항상 술자리에서 취기가 어느정도 온다 싶으면 손가락을 들기 시작하는데 맥주 마시는 날에는 술로 배를 채워 밥이 안들어 간다. 한번씩 과음 하는 날에는 정말...쩍...다음날에는 속쓰리고, 배고픈 상태로 아침을 맞이한다. 아~한국 술자리가 그림다. 항상 푸짐한 안주...다음날 먹는 해장국...그립네.

(랑카에서 밥 먹기전에 술 마시는 이유는 다음날 아침에 속이 쓰려 입맛이 없어도 전날 든든하게 먹어서 한끼 정도는 굶어도 위에 부담이 덜 생긴다는 것임.)

아누라다푸라 출처 알 수 없는 호수에서 샤워

시기리야에서 2~3시간 정도 걸려서 아누라도푸라에 도착했는데 호텔이 아닌 호수에 차를 세우는 것이다. 분명히 수영을 한다고는 들었는데...근데 이게 웬일? 다들 비누를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호수에 뛰어 들어서 씻는거...난 사실 당황했고, 여성팀원들은 들어갈 엄두조차 못냈다.

사실 수영을 하기에 그 물은...내가 생각한 물이 아니었다. 스리랑카의 관광지 청정지역을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근데 현지Y분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권유에 하현이와 둘이 들어갔는데, 아주 물이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다. 기대한 청정지역도, 수영도 아니었지만 즐거워하는 현지인들 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동화되려고 노력했고 웃으면서 호텔로 돌아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샤워는 바로 또 했다는거~^^

(아루라다푸라는 "랑카에서도 더운 지역이라서 더욱 그렇다."라고 말한다.)

이제 2개월이 지났고,

길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목례와 미소면 어색한 눈빛도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고,

모라투와 길거리 돌아다니면 아는 사람을 꼭 만나고,

바나나 파인애플 가격도 뻘해서 속지도 않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싶을 따름이다.

요리보고 조리보고

지난달 장조림 이후 우리 랑카팀은 매일 먹는 커리와 중국식 믹스라이스에 때론 지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저희 팀은 한국식으로 먹을 때는 다들 과식을 한답니다. 한국식이라고 해 봐야 거창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요리를 할 때가 많아서 인지, 2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인지, 정해진 식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먹고 싶은 것으로 골라먹을 수도...

주된 식단은 장조림+오이절이 / 돼지고기 불고기+파겉절이 / 참치완자+야채볶음 / 감자볶음+장조림 // 양파&마늘장아찌, 가지조림, 계란국...

아무튼 이번 달에는 지난 달 약속한 대로 [닭 도리탕]입니다. 더운 날씨속에 저희는 가끔 이렇게 몸을 보신한답니다.^^

준비물

닭 / 감자 / 당근 / 양파 / 파 / 마늘 / 후추 / 고춧가루 / 간장 /

조리과정

1. 닭을 부위별로 손질한다.
(랑카는 통닭이라서 항상 부위별로 손질해서 냉동보관 합니다.)
2. 다진마늘 + 후추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한다.
3. 물은 머그컵 한잔 + 간장 3큰 술 넣는다.
4. 가스불로 15~20분 정도 센불에 끓인다.
5. 닭이 어느정도 익으면, 얇게 썬 당근과 감자를 넣고 5분 정도 끓인다.
6. 마지막으로 파, 양파, 고추를 넣고 약불에 5분 정도 끓인다.

사실 저는 요리하는 것이 즐겁기도 때론 힘든 일과를 마치고 요리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 마다 집에서 따뜻한 밥과 다양한 식단으로 식탁을 채워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왜 항상 어머니는 귀찮은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들기 시작하는 팀원을 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읽으시면 다들 한번쯤 도전해보세요.

레시피는 각자 자유롭게 만들어도 무관합니다. 요리는 "감"이 중요하니까요.

준비물에 쇠주가 없네요. 껌...

Ki Youn

+ 강가의 아이들

+ 바이러스 별곡

강가의 아이들

모라투와 지역만 봐도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면 호화스러워 보이는 집들이 모여있고, 반면 강가는 판자로 지어진 빈민촌이 형성되어있다. 슬럼가가 있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다. 한국과 달리 보편화된 주거의 형태가 주택생활이고 상위 몇 프로 만이 수도 콜롬보의 고층 아파트 생활을 한다.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중산층 가정을 방문 해보면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넓은 정원과 2층 짜리 건물로 입이 떡 벌어진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 마다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 강가에 모여 사는 아이들이다. 강가주변에 물고기 양식을 하며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아이들은 밥벌이를 위해 일을 하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보통 가정집 보다 여자 아이들은 시집을 빨리 간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먹이는 것이 힘든 것이다. 나무판자로 지어진 집들은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골목만 남겨두고 다닥다닥 붙어있으며 비가 자주 내리고 강가의 습기 때문에 항상 축축해 보인다.

30가구가 넘게 모여있는데 공중 화장실은 2개, 공중 목욕탕은 하나이다. 파리며 모기며 강아지에 아이들까지 함께 산다. 아이들이 피부병이 없을 리가 없다. 잘 씻지도 못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먹기가 힘들다. 아토피로 지난 24년을 개 고생을 해온 나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나의 한국 생활은: 일주일에 한번씩 스팀청소기로 침대의 진드기를 박멸하고, 방 벽은 향균 타일로 마감되었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으며, 땀이 나면 얼른 씻고, 보습제도 왕창 바르는 생활. 깡깡하고 귀찮지만 그것조차 기꺼워하는 것이 아토피다. 그만큼 괴롭다. 항상 관리해주어야 하고 완치란 없다. 내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볼을 부벼 주지 못한 이유도, 나 스스로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피부병을 조심해라'는 꼬리표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옮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크고 작은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나 또한 피부병이 심해지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가 라온아띠에 지원하면서 특이 사항에 아토피라 쓴 것도 면접 때 아토피가 있다고 이야기 한 것도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다 감수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활동으로 내가 결코 양보 하지 않았던 것을 포기하면서 그 곳에 새로운 것을 채우고 있다. 테레사 수녀에게만 어울릴 것 같은 '희생'이라는 거창해 보이는 단어도, 지금 나의 각오에 붙여주고 싶다. 우리 팀의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강가의 아이들은 나에겐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이다.

개발을 해 나가는 도시가 그러하듯 이곳 사람들도 언제 내몰릴지 모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개월이지만, 라온아띠나 우리의 의도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은 미지수이다. 아이들과 친해지고 있는 중이다. 유아 반 아이들을 맡은 지 4주가 되었고, 알파벳 한 글자와 그림 한 페이지를 번갈아 가르쳐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 익숙해지는 중이고, 아무렇지 않게 될 예정이다. 건방진 확신이지만 그렇게 해 보려 한다.

'Intension of changing local society', 그냥 작은 가지 하나 부여잡고 마구마구 흔들여 보는 것이다. 나도 신나게 ,아이들도 신나게!

바이러스 별곡

나는 편집을 담당한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속상한 마음에 괴로운 이유는 스리랑카바이러스 때문. 인터넷이 가능한 나라 중에서 스리랑카가 환경이 제일 열악한 줄은 짐작 하고 있었다. 느리건 물론이고, 메일을 보낼 때 사진을 몇 장 첨부해 버리면 몇 번이나 다시 보내기를 반복해야 한다.

결국 몇 주전 내 컴퓨터는 바이러스로 날라가 버렸고, 그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은 사용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인터넷에서 다시 다운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는 다운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허허허.

처음 바이러스에 당한 사건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카메라를 연결해 메모리칩과 사진을 홀라당 날려버린 일이었고, 얼마 전에 두 번째 메모리칩이 사망하였다. 기계보다 우리 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날라가 버려 무지 속상했고, 컴퓨터가 날라가 버렸을 때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한 달에 한번 내는 한국월말 보고서를 편집 할 수 없게 되어버리다니, 우리의 생각과 모습을 담은 자료를 만드는 일인데, 이왕이면 더욱 추억이 되게 더 멋져 보이게 만들고 싶은 욕심은 나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알고 있다. 겉보다는 속이 중요한 것을. 내 말은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을 것일지도 모르겠다. 대학에서 편집부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집착 중 하나이리라. 나아 말로 편집에 열중 하며 3월에 개인 글을 쓰지 못한 것도, 집착에 사로 잡혀 경중을 잘못 판단 것이 아닐까? 편집을 할 시간에 분명 스리랑카를 더 배우게 될 것이다. (전 잠을 적게 잘 수 있는 여자니 까요~) 다음 호에 내가 쓰는 글이 늘어 나겠죠?!

혹시나 하는 설레발에 컴터 이고지고
넘쳐나는 보고서에 만성피로 베프됐네
두고올걸 두고올걸 방에 고이 짱박아둘걸
알리알리알라성 알라리 알라

인터넷은 우주에서 제일 느린 줄 알았네만
렌션을 꽃자마자 바이러스가 30개
스리랑카에서는 알약도 소용없네
알라알리알라성 알라리 알라

승리컴터 날라가고
내 컴터도 날라가고
제시카컴터 박살나고
내 디카 메모리칩, 2개나 해먹었네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 얄라

오지마소 오지마소 컴터 들고오지마소
깔려있던 프로그램 모두다 날라가니
보고서도 편집못해 이려고 있구나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Geum Sun

+ 돌아보고서

돌아보고서

사실 스리랑카에 와서 큰 고민 없이 별다른 걱정없이 살아가고 있던 나였다. 조금은 빠른 중간평가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내가 얻은 건 더 많았던 것 같다. 지금부터 나의 생각을 한번 꺼내어 보고자한다.

3월 4일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 도착한 나는 짜증이 확 밀려왔다. 긴 비행대기 시간이 날 짜증나게 했었고 내가 처음 말았던 공기가 나에게는 기분 나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도착해서 한국시간으로 따지면 3시 30분에 도착한 것과 다름이 없기에 피로감이 쉽게 몰려왔었다.

지금 나는 스리랑카 베이비로 살고 있고 어느덧 그 시간이 67일.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경험을 했었다.

내가 처음 스리랑카에 와서 배운 말은 '말라=개'다. 그리고 했던 처음 했던 행동은 남들 먹고 있을 때 개 구경했던 일.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처음 느꼈던 감정은 짜증. 이유는 캐리어의 짐 중 여러 가지 잡류가 터져버려서. 그리고 허겁지겁 지나가버렸던 3월.. 이 달의 나의 고민은 도대체 아시아적 감수성과 시각은 언제쯤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이 나라의 농담수위...

그리고 4월...은?

완전 바꿨던 정신이 더 없었던 달이었다. 3월 달이 지나갈 즈음에 우리팀이 중간평가를 4월 중순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함께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다. 중간평가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이 후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되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디에 더 필요한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수동적 인간이 아닌 능동적인 인간으로의 변화. 부정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각 갖기. 그리고 처음부터의 나의 목표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가가기' 나의 목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잘 이루어져서 잠시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기도 했는데 그것은 행복한 고민이라는 걸 알게되었다. 그리고 알다가도 모를 감정들이 마구 생겨나기도 했다. 나 자신조차 헛갈려서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다. 난 고민녀인 것 같다. 하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리....

그리고 부은행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바뀐 또 하나의 큰 이벤트는? 우리 곧 이사해요! 채광이 잘 안되서 빨래도 잘 안 마르고 침대가 눅눅해서 찻찻한 나날을 보내고 각종 피부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도중 귀인을 만나서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은 집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 KB BANK 그리고 YMCA.

돌아보고서를 마치며 뭐 내가 썼지만 너무 거시적인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데 뭐 5월 보고서는 미시적 관점으로 써봐야겠다고 느낍니다. 전 참 잘 삽니다. 아참! 그리고 저 폰 샀습니다.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세요? 언제든지 콜 0094 - 077 - 267 - 6441

Ha Hyun

+ 여행

+ 마음 속 이야기

+ 사람 사는 곳, 스리랑카

+ 아쇼카의 안정망 탐지기

+ 미묘한 갈등

여행

코끼리 고아원

스리랑카에서도 인맥이 있었을까? 람부카나 YMCA 덕분에, 우리는 현지인과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 코끼리 고아원에 들어갔다. 현지인과 외국인의 입장료 차이는 상당하다. 들어가자마자 코끼리의 소변과 대변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연의 냄새라고 자꾸 되새겼다.

코끼리의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었다. 마치 돌멩이 표면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만져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있었다. 코끼리와 접촉은 짧게 끝나고 코끼리들은 이동하기 시작했다. 쇠창살을 든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욱박질렀다. 코끼리들은 그렇게 멀어져 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본 코끼리들의 모습은 웅장했다. 강가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는 야생의 현장에 있는 듯했다.

수목원

백 년 묵은 것 같은 나무들이 숲을 만든 느낌이었다. 돛자리를 깔고 화목하게 앉아 있는 식구들, 다정하게 걸어가는 연인들, 이리저리 오도방정을 떨며 뛰어 다니는 아이들, 대낮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들, 나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원숭이들.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오고 싶다.

치아사리 템플

맨발로 절에 들어가는 기분은 날 경건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경을 경청하고 있었고 명상을 하는 중이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적으로 앉아 있으면서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캔디 YMCA

맥주를 들이키고, 스리랑카의 소주인 아락을 마시며 밤을 보냈다. 코디네이터 아쇼카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했다. 아내가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술 잔을 숨기고 아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캔디 YMCA에 있는 분이 술자리를 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 원래 술을 마시면 안되지만, 인생을 좀 아는 분이라 참 좋았다.

시그리아

등산에 목말랐던 참이었는데 시그리아 돌을 보러 등산한다는 말에 신이 났다. 근데 막상 도착

하고 보니까 큰 돌이 너무 가까워 보였다. 오랜만에 근육의 고통을 좀 느끼나 했는데 어림도 없지 않았다. 높지도 않아 보여서 아쉬운 소리를 했다가 금순이 누나한테 한 소리 들었다. 정상 바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대자연이었다. 이게 바로 스리랑카구나 라는 탄성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부딪혔다.

호수

뜨거운 열기 좀 식히려고 호수에 들어 갈려고 했는데, 온천이었다. 다 뜨겁게 작렬하는 태양 덕분이라. 상의 탈의를 하려고 했지만, 누나들의 눈을 위해 덮어 두었다. 깊이 들어갈수록 호수의 바닥이 미끈거렸는데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오염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이미 잠수를 했기에 그냥 수영하며 재밌게 놀았다. 웨랑커의 영당이 쇼가 큰 웃음을 선사했다.

Anuradhapura 역사 유적지들

요염하면서도 인상적인 불상이 기억난다. 이수루말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불상이다. 남자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여자는 검지손가락을 편 채, 만질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수루의 아버지는 그에게 왕이 되고 싶은 지, 아니면 사랑을 택할 것인지 물었다. 이수루는 사랑을 택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마음 속 이야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기억하기보다,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보편적인 교훈을 기억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어서 세세하게 도와주는 것이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도움을 청했던 말이 기분 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상처 났던 4번째 발가락이 무진장 욱신거렸다. 다리에 힘이 빠져 혼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형, 누나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승찬이 형이 딱 보고 고름이 찼다고 말했다. 발가락을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난 기겁을 하며 오만 인상을 다 썼다. 형은 고름을 빼주기 위해 옷핀 같은 것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 다녔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 누나, 으이구 몸 좀 챙기며 일하라고 하는 누나, 엄살피지 말라고 하는 누나. 그 때 그 시간이 너무 훈훈했다. 참 그 동안 장난처럼 온갖 구박을 받으며 개념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나였기에, 어쩌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강한 채찍 같은 말을 해달라고 많이 떼쓰기도 했지만 나를 챙겨주는 형, 누나들이 참 좋다.

눈에 작은 이물질 하나 들어가서 눈을 계속 깜빡였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동안에도 눈에 뭘

가 들어간 느낌이 있었다. 점심을 다 먹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형 누나들이 쉬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다. 고집 피우지 말고, 말 좀 들으라고 그냥 좀 쉬라고 한다. 더군다나 코디네이터 아쇼카는 침대에 누워 있는 내게 와서 안약까지 넣어준다.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조금 눈이 따끔 거릴 뿐 인데...

혼자서 상상을 해보았다. 괜찮다고 하며 일 하려고 나서면 욕을 더 바가지로 얻어 먹고 날 챙기는 훈훈한 분위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쉬니까 편안하고 온 몸이 스르르 풀린 느낌이였다.

사람 사는 곳, 스리랑카

자유시간인 주말에 바다를 보러 나갔다. 답답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볍게 조깅을 하며 혼자 나갔다. 바다에 도착하니 아빠와 아들 3명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낚시줄과 지렁이가 끼워진 낚시 바늘은 평소 보던 것이었다. 다만 낚시줄이 플라스틱 통에 잔뜩 묶여 있을 뿐이었다. 여수에서 했던 손 낚시가 떠올랐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물고기가 잡힌다. 팔뚝만한 것에서 손바닥만한 것까지 척척 낚아 올린다. 내가 다가가자 한 번 해보라고 한다. 웃음 띤 얼굴로 살갑게 다가오더니 어린 아이가 돈을 요구한다. 돈 안 좋아, 우리 친구야 라는 대충 싱할라 언어로 떠들어대면 아이는 돈을 달라는 손을 뒤로 빼고 멧쩍은 미소만 짓는다. 10분이 지났을까, 아이가 음료수를 원한다. 거절을 하고 낚시 구경을 조용히 했다. 아무도 날 안 봤을 때, 근처 가게에서 1.5L 코카콜라를 사왔다. 마시라고 했을 때 거절한 아이는 아빠의 눈치를 보았다. 아빠에게 괜찮다고 마시라고 건넸다. 아빠가 마시고 나니 아이들이 마시기 시작했다. 정말 딱 한 모금만 마시는 그들이었다. 아빠는 잡은 물고기를 내게 보여주면서 한 마리당 10루피, 100원이라고 말한다.

내가 공중에 추가 달린 낚시줄을 돌리는 모습에 아이들은 자지러진다. 자기들이 맛을까봐 뒤로도망쳤다. 물고기가 그들의 점심, 저녁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물고기에게 지렁이 밥만 주는 것 같아 뒤에서만 바라보았다.

근육이 빠지는 중이다. 몸이 살짝 가벼워지긴 했다. 체력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YMCA 웨이트 트레이닝 장에 갔다. 근육질 남성들이 수두룩 하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과 운동으로 땀 흘리는 순간이 무척 좋았다. 어떤 이는 내게 다가와서 싸워보자고 농담을 하고 같이 온 한국 아가씨들을 소개 시켜 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주었다. 너 몸 좋으니까 한국 여자 사람들이 오면 상의 탈의하고 근육 한 번 보여주라고 했더니 싫다고 손사래를 친다. 그러더니 거울을 보며 자신의 근육 한껏 뽐내며 나한테도 포즈를 잡으라고 턱을 치켜 올렸다. 유쾌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식당 일을 마치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마치고, 각 자의 일을 마치고 사람들은 모라투와 YMCA 웨이트 트레이닝 장에 온다. 피곤하더라도 함께 땀 흘리고 근육을 자랑하며 시간을 보낸다.

아쇼카의 안전망 탐지기

난 밥을 많이 먹는다. 먹는 만큼 움직여줘야 속이 편안하다. 비 오는 날, 무척 답답해서 해변가로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 빗물이 가득 고여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마침, 바자지 택시가 지나가길래 얻어 타기도 했다.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 왔다. YMCA 코디네이코 아쇼카는 진지한 얼굴로 내게 다가 왔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해변가를 달리더라고 말했다. 충격과 어처구니 없음이 지나쳤지만, 난 그의 어깨를 때리며 웃어 넘어갔다.

여행을 다녀온 후, 빨래가 산더미로 밀렸다. 빨랫줄이 더 필요해서 시장을 돌아다녔다. YMCA에 자주 오는 바자지 택시기사 안토니오가 날 보더니 길을 가르쳐주었다. 이리저리 손가락을 가리키더니 결국은 타라고 한다. 난 괜찮다고,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타라고, 타라고 바자지를 계속 가리켰다. 난 달리기를 하고 싶어 괜찮다고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다. 빨랫줄을 사고 집으로 냉큼 달려갔다. 햇빛 짙은 날에 빨래를 널어 놓으니 기분이 말끔했다. 아쇼카에게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온다. 왜 달렸냐고. 아쇼카의 장난은 못 말린다. 본론은 빈 물병 좀 달라는 거였다.

아쇼카는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가끔씩 답답하기도 하지만 멀리 가고 싶을 경우 말하고 가면 된다. 아직 시도는 안 해봤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나 보다. 나 또한 정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5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싶다. 2달이 지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다. 늦은 밤에는 활동을 삼가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

미묘한 갈등

Mr.니할과 영어 문서를 앞에 두고 난 성을 냈다. 매주 월요일이면 모라투와 YMCA old member들과 우리는 회의를 한다. 싱할라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날이 많아서 회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어로 진행해 줄 수 없는지 요청을 하였고, old member들은 영어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동의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Mr.니할이 영어로 종이에 적은 글들을 컴퓨터로 작성해야 했다. 난 필기체를 알아 볼 수가 없어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던 참이었다. Mr.니할은 분명한 글씨를 왜 알아보지 못하냐고 다그쳤고,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한다고 바쁜 기색을 나타냈다. 난 글씨체가 달라서 알아 볼 수 없다고 바로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 난 영어를 빨리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글자냐고 Mr.니할을 다그쳤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했다. 몇 개의 오타가 있었지만, Mr.니할은 저녁 회의가 끝나고 고맙다고 말했다.

버릇없이 언성을 높인 난 반성하고 있다. 나보다 연장자이신데, 경솔하게 행동했다. 존중과 겸손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겠다.

Lanka, April!

- + 승찬
- + 선화
- + 기연
- + 금선
- + 하현









දැක්වීමයි! දැක්වීමයි!
 වෙරැබල කාටලොව වෙරැබල බලන වෙලාවක්
 එක් කාටකාටයෙකු පමණක් රුපිය 100 ටියු 100 රුපිය 100
 පැමිණීමට කාරුණිකවත් රුපිය 200 ටියු 200 රුපිය 200
 රුපිය 500 රුපිය 500 රුපිය 500
 රුපිය 1000 රුපිය 1000 රුපිය 1000

